

최승희 다시 읽기

Rereading of Choi Seung Hee

김주희(Kim, JooHee)*

이진아(2021). 네이션과 무용—최승희의 민족 표상과 젠더 수행. 도서출판 선인.

저자 이진아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박사학위 이수하고 현재 동아대학교 아세안연구소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21년 발간된 이 책은 박사학위논문 「1930-1940년대 ‘조선예술’을 통해 본 제국의 문화권력과 젠더적 수행성: 무용과 음악 장르를 중심으로」와 아모레퍼시픽재단에서 지원 받은 「월북 이후 최승희의 민족 표상과 젠더 수행」 등에 기반 한다.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 지역을 이동하면서 활동한 무용가 최승희의 행적을 민족표상과 젠더 수행에서 바라 본 내용을 담고 있다.

비교적 빠르게 읽을 수 있는 20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목차는 4장 14절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자기민족지, 한국무용 그리고 최승희에서는 주제 선정의 당위성과 논의의 필요성, 방법 등을 기술하고 있다. 1절 왜 최승희인가에서는 민족적 디아스포라가 체화된 여성 몸인 동시에 다양한 담론이 교차된 춤추는 여성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2절 한국무용과 네이션 상상은 최승희 춤을 논의하는데 근거가 되는 메리 루이스 프랫(Mary Louise Pratt)과 레이 초우(Rey Chow)의 사유에 근거한 자기민족지(autoethnography)를 소개한다. 저자는 최승희의 조선무용을 파악하기 위해 자기민족지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말한다. 국내연구 경향을 참고해 보았을 때 자기민족지라는 단어는 보다는 자문화기술지라는 번역이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원어 ‘autoethnography’에서 ‘자신’, ‘스스로’ 뜻인 ‘auto’가 어미에 붙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자 ‘개인적인 경험’이 주요 토대가 되는 연구방법이다. 단어 차용에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최승희라는 인물이 정체성을 인식하고 예술 행위를 드러내는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

2장 외재적 조선 표상과 이중 은막의 무희에서는 조선과 일본에서의 춤 활동을 조명한다. 3절 제국의 예술장과의 조우, 조선 표상의 정치학은 브루디외(Pierre Bourdieu)의 개념을 빌려 식민지 시대 안에서의 문학예술이 갖은 권력과 동시대에 활동한 조택원, 배구자, 박영인을 비교하여 논의한다. 4절 외부적 관찰자, 조선적 현실의 응시는 최승희의 생애와 함께 이시히바쿠가 갖은 무용계의 입지, 그의 문화생으로 신무용에 입문한 배경을 다룬다. 특히 1933년 일본에서 발표한 「에헤라 노아라」 성공에 주목한다.

* 성균관대학교 하이브리드미래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에헤라 노아라」와 같이 조선의 전통을 모티브로 한 작품들은 민족혼이나 일제 강점기 안에서 발현된 저항의식이 아니라 조선무용을 통해 조선을 타자화한 그녀의 안무 방식이 일본 문화 엘리트라는 문화권력에 수용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5절 원시적 섹슈얼리티의 자기 전시에서는 전통춤에 정확한 재현이나 체계적인 전수 보다는 자신의 신체를 오리엔탈리즘 전시 수단으로 삼아 식민지 무희가 외연을 확장하는 주체화된 방식을 파악한다. 6절 이중은막에서 춤추는 무희는 오빠 최승일과 남편 안막의 조력 그리고 당대 일본과 조선의 엘리트 지식인 후원자들의 지지를 받아 만들어 가는 최승희 식의 민족무용을 해석한다.

3장 순화하는 조선무용과 유동하는 민족/젠더 표상에서는 미국과 유럽, 중국, 만주 등에서의 자취를 되짚는다. 7절 세계 순유의 네이션 상상력은, 일본에서의 성공을 발판 삼아 진출한 3년간의 해외 순회공연 성과를 통해 세계의 무희에서 동양의 무희라는 이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요인을 문화 엘리트에 의해 반서양담론의 대안으로 동양무용을 내세웠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8절 순화하는 조선무용, 제국 문화의 전파에서는 1940년 이후 일본 전시체제가 고조되는 시점에서 최승희가 모색하는 동양무용을 진단한다. 일본과 조선이 각기 투영하는 동양무용은 위계질서가 내재된 일본적인 동양무용과 식민지의 문화 민족주의를 지탱해주는 조선무용이 매개된 동양무용으로 각기 다르게 기대되었다. 9절 제국의 오리엔탈리스트와 조선무용의 축구는 일본의 제국주의 문화권력과 긴밀했던 이시이바쿠의 활동과 일본무용계에 진입했던 당대 신무용가들을 조망한다. 10절 동양발레론 혹은 오리엔탈리즘의 틈새에서는 중국과 만주국 순회공연과 매란방의 만남을 계기로 중국문화를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보살춤 시리즈에 집중한다. 최승희는 동양무용으로 연계되는 일본무용을 넘어 중국무용과 조선무용이 모두 합쳐진 동양무용에 관심을 갖게 된다. 여기서 보살춤은 서양과 일본 관객의 왜곡된 응시의 한계를 넘어 그 본질에 대한 주체를 재구성했다고 밝힌다.

4장 자기민족지의 내재적 계승과 네이션의 딜레마에서는 숙청당하기까지 북한에서의 활동을 다룬다. 11절 식민주의 유산의 극복은 최승희와 안막 딸 안성희가 주체사상을 구현하는 중간 매개자로 인정받게 되는 상황과 사회주의 문화권력이 전략적으로 흡수하는 조선무용을 설명한다. 12절 내재적 계승자, 혁명적 인민성의 발현에서는 인민을 위해 민족성을 강조한 조선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 교육한 최승희 활동에 대해 미국과 일본에서의 활약을 적극적으로 부정하기 위한 것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에서 춤으로 표상하는 어머니는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이상적 여성상으로 상징화된 것으로 분석한다. 13절 민족무용극을 둘러싼 네이션 서사는 여성적 섹슈얼리티를 극대화된 춤 대신에 민족무용극을 통해 강한 남성성을 지닌 여성인민을 제시한다. 그 과정에서 그녀가 남긴 춤 무보는 남성과 여성을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거나 여성과 남성을 거의 같은 비율로 제시하여 춤이 갖고 있는 젠더성을 제거한다. 저자는 춤이 언어 텍스트를 지니지 않고 음악, 의상, 조명 등이 결합된 예술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계넘기가 가능했다고 진단한다. 14절에서는 일반적인 민족무용과 최승희식 민족무용을 비교하면서 그녀의 춤을 양가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유동적인 대상으로 평가한다. 그러면서 그 동안 한국무용사에서 민족무용을 표상하는 신화적 존재로 과도하게 받아들여져 온 지점을 지적한다.

대부분의 역사연구가 그렇지만 최승희에 대한 제한된 기록으로 인해 무용 연구자들의 관심에서 다소 소원해진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녀가 소환되고 있다는 점이 반가워 『네이션과 무용』을 소개하고 싶었다. 이 책에 대한 소개와 함께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저자는 연구 결과물들을 대폭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가독성 있는 문장으로 다시 작성하려고 한 노력을 책머리에 밝혔다(p. 5). 하지만 글쓰기가 여전히 논문 형식에 머물러 있다. 에필로그는 논문 초록 정도로 전체내용이 축약되어 마무리 되고 여러 논문을 엮다보니 전체적인 흐름이 고르지 못하다. 그럼에도 저자는 ‘무용연구의 논의들이 무용계 외부의 일반 독자와는 충분히 소통되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 부분이 나에게 가장 애뜻하고 안타깝게 생각되었다’라고 쓰고 있다(pp. 6-7). 그렇다면 과연 이 책은 일반 독자를 위해 얼마나 충분히 소통하였는가를 반문하고 싶다.

본문에서 저자는 자신의 연구주제가 ‘처음 시도’되고 ‘새롭게 고찰’되고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p. 16; p. 28). 무용을 문화연구 시각에서 논의해온 여러 연구 중에서 1991년에 발표된 제인 데스몬드(Jane Desmond)의 「Dancing out the Difference: Cultural Imperialism and Ruth St. Denis's "Radha" of 1906」가 있다. 주디 반 자일(Judy Van Zile)이 『무용역사기록학』에 게재한 「최승희의 춤에 나타난 한국의 근대성」에는 루스 세인트 데니스(Ruth St. Denis)의 관음보살춤과 최승희의 보살춤의 유사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승희를 다루는 연구에 있어 데스몬드 논문은 상당한 의미를 지녔지만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주제로 보았을 때 박상미가 2006년에 게재한 「The Making of a Cultural Icon for the Japanese Empire: Choe Seung-Hui's U.s. Dance Tours and "New Asian Culture" In the 1930s and 1940s」도 참고할 법한 선행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제외되어 있다. 연구의 독창성을 강조하는 것은 논문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있어 그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주로 쓰이는데 독창성을 무리하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글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숙고해야 할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최승희는 최승희였다. 이 책이 반갑게 느껴진 것도 필자의 기우에 불과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박제화된 적이 없이 오늘도 공연예술 현장에서, 이론연구에서 다시보기되고 있었다. 앞으로도 최승희는 다양한 방식으로 재탄생되고 다채로운 시각으로 접근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네이션과 무용>을 공연예술 예술가들과 연구자들이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한다.